

경상감영 책판목록의 현황과 기록내용 분석*

-『鏤板考』와 『書冊目錄』을 중심으로-

옥 영 정**

- I. 머리말
- II. 경상감영 책판이 수록된 주요책판목록의 현황
 - 1. 조선후기 책판목록류
 - 2. 地誌의 책판기록과 책판목록의 비교
- III. 『鏤板考』와 『書冊目錄』의 기록내용 분석
- IV. 맺음말

국문초록

책판은 지식의 생산, 보급, 수용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의 삶의 역정을 현대적으로 증언해 주는 살아있는 史料다. 책판과 관련한 기록물 중에 각 지역 또는 소장처의 현황을 정리한 책판목록은 처음 책판이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를 정하는 보관 장소의 선정, 보관 건물(장판각)의 규모, 장판각의 건립과 수리에 대한 내용을 추정할 수 있

* 이 논문은 2017년 5월 19일 안동에서 개최된 “영영장판과 영남의 출판문화”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교수 / gabinja@aks.ac.kr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게 하며, 이와 함께 책판의 보존과 관련된 기록의 형태는 후쇄본의 간행, 보관을 통한 교체와 해체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방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책판목록은 작성당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므로, 그 지방에서 간행되거나 보관된 전적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인 것이다. 대구의 경상감영도 이러한 목록에 수록된 책판의 실물이 전해지기도 하며, 당시에 인출하여 서책으로 남은 것이 대부분 영영장판본으로 남아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남지방 특히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 책판목록을 정리하고 그 중에 관 주도의 공식적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鏤板考』와 『書冊目錄』에 수록된 대구와 경상감영의 책판을 살펴보았다. 두 책판 목록 중에 『누판고』는 관 주도의 공식적 기록으로서, 『書冊目錄』은 원자료로 남은 마지막 기록으로서 특히 주목된다. 현시점에 가장 가까운 목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현재 전해지는 영영장판과의 비교대조도 가능하므로 책판의 진정성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경상감영, 영영, 영영판, 책판, 책판목록, 누판고, 서책목록

I. 머리말

최근 들어 책판은 수록된 내용에서 드러나는 전통시대 지식 생산과 전승 뿐만 아니라 책판제작의 문화사적 배경이나, 보존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유산으로 남아 미래에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자리 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책판과 판목에 관해서 이덕무(1741~1794)가 남긴 글에는 책판의 유용성과 더불어 교서관 및 경상감영에 책판이 많았다는 것과 보존을 위한 방법, 제작과정 중에 소금물에 삶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校書館 서관은 원래 보관하는 집이 없어 파괴된 가옥 양쪽 끝에 쌓아 두었으므로, 시령이 무너져 판각이 달아나고 땅에 붙은 부분은 습기에 차 썩는다. 또 인쇄를 뜨는 먹도 松煙이 粗惡하고 재나 모래가 반이나 섞이고 흙탕물이 스며든다. 벼루도 질이 좋지 않은데다 건성으로 대략 갈므로 힘을 들여 억지로 인쇄하니, 동활자라도 부서져 버릴 텐데 연약한 나무야 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한 번 인쇄한 뒤에는 습기에 찬 것을 그대로 햇볕에 흠어 놓아 뒤틀려 벌여 지고 주름이 지니, 전공(前功)이 아깝게 된다.

慶尙監營에 서관이 많았는데 심지어는 흙탕 뜰에 벌려 놓아 진흙 밭에 밟히게까지 되니, 물과 불에 의한 해 외에 일대 厄이라 하겠다.

海印寺의 불경판은 시령에 질서 정연하게 꽂아 본받을 만하니, 교서관도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 소금물로 삶아 말린 뒤에 비로소 글자를 새기는데, 만약 습기가 있으면 글자를 새긴 뒤에 마르게 되어 絲欄과 글자가 줄어들어서 장마다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못하게 된다.¹⁾

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1, 盜葉記 8, 書版當愛惜條, 書籍一板之刻 爲百代之利 萬人之益 此天下至寶也 校書館書版 元無皮閣之制 積置於敗屋 兩端冒格 脫葉親地處腐濕 且其刷榻之墨 松煤麤惡 半雜灰沙 浸以塵埃之水 澆置惡石 粗搗磨 極力刷塗 銅字亦泐 何論脆木 一經濕刷 散置烈日 翻張垢 前功可惜 慶尙監營 多書版 甚至列置泥庭 以承沾 足可謂水火 以外一大厄也 海印寺佛經版 插架井井 可以爲法 校書館 亦用此法可也 至若刷墨 用精墨精硯 或用墨末調脂 仿印色法 可也.

版木條. 書版之材 中國用紅梨木 倭人用樺木 我國用杪木 不必專用杪木 兼用紅梨與樺木 以廣其用 烹以塩水 待其乾燥 始刻字 若有濕氣 則刻字後始乾 所刻絲欄與字縮小 衆

그가 경상감영의 책판을 직접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의 글을 통해서 책판의 효용성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다. 즉 판각이 닳아지고 땅에 붙은 부분은 습기에 차 썩기도 하였으며, 인쇄한 후에 방치되어 뒤틀리거나 주름지는 것이 있음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 당시에도 책판의 보존관리가 그다지 수월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판은 지식의 생산, 보급, 수용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의 삶의 역정을 현대적으로 증언해 주는 살아있는 史料다.²⁾ 현전 자료로 보더라도 고려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판각되었으며, 지역 내의 학파나 문중 그리고 중앙 및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고유의 유교, 불교문화의 특성에 의해서 책판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보존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책판은 단순히 당시의 인쇄문화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글자나 도판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지식과 사상, 그리고 이것이 제작될 수 있었던 여러 사회적 배경의 혼합물로서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인 것이다.

이러한 책판과 관련한 기록물 중에 각 지역 또는 소장처의 현황을 정리한 책판목록은 책판이 생성된 이후에 작성되는 것으로서 수록된 내용의 1차적 분석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어디에 어떻게 책판을 보관할 것인지 정하는 보관 장소의 선정, 보관 건물(장판각)의 규모, 장판각의 건립과 수리에 대한 내용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며, 이와 함께 책판의 보존과 관련된 기록의 형태는 후쇄본의 간행, 보관을 통한 교체와 해체 등에 이르기 까지 매우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책판목록은 작성당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므로, 그 지방에서 간행되거나 보관된 전적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다. 대구의 경

葉參差不齊 監董國朝寶鑑刻版時 方覺此理. (韓國文集叢刊 제259책, 『국역 청장관전서』, 조성래 역, 민족문화추진회 1981.)

2) 옥영정, 「조선시대책판은 어떻게 관리되었나」.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상감영도 이러한 목록에 수록된 책판의 실물이 전해지기도 하며, 당시에 인출하여 서책으로 남은 것이 대부분 영영장판본으로 남아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살펴볼 내용은 영남지방 특히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 책판목록을³⁾ 정리하고 그 중에 관 주도의 공식적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鏤板考』와 『書冊目錄』에 수록된 영영의 책판을 살피고자 한다. 두 책판 목록 중에 『書冊目錄』은 원자료로 남은 마지막 공식 기록으로서 특히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경상도는 전라도와 더불어 한국의 인쇄문화사에서 큰 기동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많은 양의 서적을 간행해냈다. 하지만 관판인쇄의 주역으로서 경상감영에서 판각된 책판의 많은 부분은 규장각이나 대구지역의 사찰에서 일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책판목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정확한 경상감영 책판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II. 경상감영 책판이 수록된 주요책판목록의 현황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책판의 보관 기록은 해인사의 대장경판 목록이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魚叔權이 편찬한 「攷事撮要」의 내용 중 “八道程度”의 “冊板” 항목이 그 처음이다. 『고사촬요』는 관리나 재야의 선비에게는 매우 긴요한 일용 類書였기 때문에 1554년(명종 9) 처음 편찬된 이후, 1771년(영조 7) 서명응이 그 내용을 대폭 개정 증보하여 「攷事新書」를 출간하기 까지 무려 12차례 걸쳐 續撰과 改修를 거듭하였다.⁴⁾ 그 중에 책판

3) 이 글에서 다루는 ‘경상감영 책판’은 ‘경상감영에서 주도적으로 간행한 책판’으로 경상감영에 남아있었거나 관리하는 책판 모두를 포함하였다. 책판은 그 소장처가 판각처가 될 수도 있고, 판각된 장소에서 다른 장판처로 이동하는 등 판각처와 소장처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판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그 경향을 읽는데 우선 목표를 두었다.

에 관한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고사촬요』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1576년 간본이 현전하는 판본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기 전에는 경주, 상주에 감영이 있었으므로 『고사촬요』에는 경주, 상주에 훨씬 많은 수량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고, 대구에는 『家禮』, 『少微通鑑』, 『小全孟子』, 『浣花流水』, 『二程全書』의 5종만 수록되어 있다. 1585년에 개정된 『고사촬요』에는 『居業』, 『明小學』, 『睡軒集』, 『靖節集』가 추가되었다. 『居業』은 『居業錄要語』를, 『睡軒集』은 『睡軒先生詩集』을, 『靖節集』은 『陶靖節集』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대구부에서 판각되고 남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權五福(1467~1498)의 문집인 『睡軒先生詩集』은 형 權五紀가 1509년경 동생의 유고 시문을 수집·편차하여 출간한 것을 후일 宗孫 權文海가⁵⁾ 시문 여러 편을 增補하고 事蹟을 부족한 후, 朴承任의 교정을 받아 1585년(선조18) 자신이 府使로 재직하던 達城에서 출간한 것이다. 1585년 당시 간본은 규장각 등 주요 소장처에 남아서 전해진다.

『고사촬요』 이후 관에서 편찬한 책판목록으로 잘 알려진 것은 정조의 명으로 1796년 작성된 『鏤板考』가 있다. 『누판고』는 17세기와 18세기를 아우르는 조선후기 책판의 공식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책이며, 경상감영 책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목록 작성을 위한 기준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書冊目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1. 조선후기 책판목록류

조선후기 대구 경상감영 책판이 수록된 각종 책판목록류는 타 지역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명의 목록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책판목록류는 『慶尙道冊

4)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冊板目錄 所載의 現存刊本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 p.5.

5) 權文海는 1580년 公州牧使로 부임하여 刊行하려 하였으나 바로 遞任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84년 가을 達城府使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585년에 간행하였다

板, 『冊板置簿冊』, 『完營冊板目錄』, 『各道冊板目錄』, 『鏤板考』, 『嶠南冊錄』,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藏板考』, 『冊板錄』, 『書冊目錄』 등인데 이들 목록에 수록된 책판의 종수는 『慶尙道冊板』에서 42종, 『冊板置簿冊』에서 45종, 『完營冊板目錄』에서 38종, 『各道冊板目錄』 71종과 40종 『嶠南冊錄』 93종,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서 85종, 『三南所藏冊板』에서 31종, 『諸道冊板錄』에서 31종, 『鏤板考』에는 71종, 19세기말의 『完營客舍冊板目錄』에는 75종, 『藏板考』에는 101종, 『冊板錄(慶尙道各邑所在冊板)』에서는 大邱營上에 49종, 大邱本府에 45종이 기록되고 『書冊目錄』에는 121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 경상감영(嶺營)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목록은 『冊板錄(慶尙道各邑所在冊板)』 내에 大邱營上, 『書冊目錄』의 營上, 『完營客舍冊板目錄』, 『鏤板考』 嶺營藏板, 『冊板錄』의 大邱營上 등이다. 책판목록에는 감영과 대구부가 함께 수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상감영을 포함하는 책판목록은 대체로 대구부와 감영을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古冊板有處攷』, 『慶尙道冊板』, 『嶺南冊板』, 『冊板置簿冊』, 『各道冊板目錄』(延) 등에는 營上和 大邱府가 구분되었다. 특히 1778년의 『각도책판목록』의 경우 경상감영, 우병영, 대구로 구분되었다. 이에 반해 『삼남소장책판』과 『영호열읍소장책판』, 『고책판유처고』, 『각도책판목록』(奎)은 대구만 표시되어 있다. 이는 경상감영 판의 정확한 범주 설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관찰영과 대구부를 구분할 것인지 또한 대구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책판목록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며 관 주도로 제작 보관된 책판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므로 대구부와 관찰영을 모두 포함하였다.

대구 경상감영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목록을 책판목록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시기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6) 윤병태, 정형우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慶尙道冊板』은 국립도서관 소장본(古026-21)으로 1948년에 베낀 15장의 얇은 책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규장각에 『嶺南冊板』의 표지서명으로 소장된 책도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黃海道 監營소속 衙前들의 명단을 기록한 『衙前官案』 이면에 기록된 것이다. 경상감영과 함께 경상도의 31개 고을의 책판을 수록하였고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였다. 慶尙道 營上 35종 大邱는 7종이다. 지명 중에 1767년 개칭된 山淸이 山陰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1767년 이전의 책판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冊板置簿冊』은 영조 16년(1740)경에 경상도를 포함하는 7개도의 책판목록을 수록하고, 하단에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였다. 대구의 책판항목에서는 營上을 구분하지 않고 大邱만 적고 41종의 책판을 수록하였다. 간혹 종이수량 아래에 ‘板無’, ‘刑’ 등과 같은 책판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完營冊板目錄』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등의 감영과 각 고을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을 영조 35년(1759) 2월에 조사한 기록이다. 이는 권수에 기록된 ‘乾隆二十四年 二月日 完營冊板目錄’으로 알 수 있다. 4도를 아우르는 책판목록인데 『完營冊板目錄』으로 서명이 정해진 것은 권수제의 제목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은 지명과 서명, 서명 하단에는 소용용지와,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 문집일 경우 저자를 표시하고, 간혹 刑缺 여부 등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감영의 책판은 모두 28종이며, 책판 중에 박세채의 南溪集은 해인사에 옮겨졌음을 표시 하였다. 특히 이 목록은 규장각 소장본으로 정조의 세손시절 장서인인 [觀物軒], [貳極之章]이 날인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인 『各道冊板目錄』(延)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의 책판목록으로 정조 2년(1778)경에 편찬한 것으로

조정화, 「조선조 후기 영남관판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조정화, 「영남지방 책판목록에 대한 고찰-작성시기 고증을 중심으로-」, 『도서관』51, 1996, 95-125.

유태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考』, 釜山: 世宗出版社, 2001. 257-320

김소희, 「책판목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완영의 출판문화-17~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문서학회 발표집 2015. 11.

추정하는 책이다. 監營 항목 없이 대구에 71종의 책판을 수록하였다. 각 책판명 아래에 인출할 때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서명의 규장각 소장본 『各道冊板目錄』(奎)은 권수에 ‘道光庚子年’이 필사되어 있어서 헌종 6년(1840)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기, 강원, 충청, 황해, 전라, 경상, 평안도 등 7개도의 각 군에 있는 책판을 기록한 것이다.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으며 책판명 아래에 冊數, 刊缺여부, 容入紙의 수량 등이 기록되었다. 대구의 책판은 47종을 담고 있다.

『嶠南冊錄』은 成大中이 수집한 家中藏書 중 영남 각지의 책판에서 찍어낸 것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783년에 엮은 것인데 대구의 서책으로 93종을 수록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책판목록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작성 연대가 드러나고 인지수 외에 책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서 책판목록류에 포함시켰다.

『鏤板考』는 徐有渠(1764-1845) 등이 정조의 명으로 정조 20년(1796)에 편찬한 전국 책판해제목록이다. 이 책은 정조 2년(1778)에 전국에 諭書를 내려 각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책판의 목록을 올리게 하여 규장각에서 그 실존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中外藏板簿에 기록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서울의 관아와 八道監營과 각 府, 牧, 郡, 縣, 書院, 寺刹, 私家に 장치되어 있는 책판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御撰書, 御定書, 經部, 史部, 子部, 集部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사부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다시 類로 세분하여서 분류하고 있다. 경상감영의 책판을 61종과 대구인근 사찰에 소장된 책판 16종을 수록하고 있다.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은 1798경에 필사된 것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책판목록이다. 지역과 路程, 책판명과 그 아래에 인출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였다. 대구에 85종을 수록하였고 완결 여부나 부분적으로 책판의 상태 등을 기록하고 있다.

『三南所藏冊板』은 수록된 책판의 간행연대를 기준으로 1842년 이후에 편찬한 것으로 판단되는 책이다. 三南, 즉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소장된

책판목록이며 필사본이다. 책판의 刑秩 여부, 소장된 책판,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감영 대구항목에 31종을 수록하였는데 사서삼경과 언해본을 각각 분리해서 14종으로 보면 전체 종수는 43종으로 파악된다.

『諸都冊板錄』은 경상도 부분의 내용이 『三南所藏冊板』과 목록의 기재 순서나 내용이 같다. 순조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의 소장의 책판목록이다. 책의 내용은 지역명과 서명, 인출 시 필요한 종이의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藏板考』는 일본 천리대도서관 소장본으로 25장이며 함경도, 교서관, 전라도, 경상도의 책판을 수록하였다. 영영은 68종, 대구 33종을 수록하였으며 19세기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冊板錄』은 권수제가 『慶尙道各邑所在冊板』인 책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책판목록으로 경상감영과 대구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감영에서 간행한 삼경사서의 신판 소요장수를 구판의 아래에 적었는데 규격 단위나 책 크기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書冊目錄』은 경상도지역의 책판목록으로 절첩본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大邱府를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營上항목과 구분하여 적고 있으며 모두 동화사, 용연사, 용천사 등 대구 인근 사찰에 소장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冊板錄』과 수록된 책판의 내용의 순서가 거의 비슷한데 『冊板錄』에 추가로 적은 삼경사서의 신판 소요장수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이 책이 『冊板錄』의 최신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성연도는 기축년(1889) 7월에 신각한 『虞註杜律』 2권의 간행연도로 판단해 볼 때 1889년 7월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대구 경상감영 책판이 수록된 주요책판목록의 현황

번호	책판목록	판본	작성년도	영남지역책판수		대구, 경상감영책판수
				지역수	책판중수	
1	攷事撮要	乙亥字本	1576	42	348	5(대구)
2	攷事撮要	木板本	1583			9(대구)
3	古冊板有處攷	筆寫本	16세기 (20世紀寫)	31	247	4(대구)
4	古冊板有處考	筆寫本	1776전후	25	243	4(대구)
5	慶尙道冊板	筆寫本	1767이전(1948寫)	31	248	42
6	嶺南冊板(慶尙道冊板)	筆寫本	1767이전	31	248	42
7	冊板置簿冊	筆寫本	1740년경	38	300	45
8	完營冊板目錄	筆寫本	1759	28	170	28
9	各道冊板目錄(延)	筆寫本	1778년경	40	340	71
10	各道冊板目錄(奎)	筆寫本	1840	32	251	47
11	嶠南冊錄	筆寫本	1783이전	43		93
12	鏤板考	筆寫本	1796년			61
13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筆寫本	1798년경	31	211	85
14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筆寫本	1798년경	31	211	85
15	三南所藏冊板	筆寫本	1842년이후	23	122	43
16	諸道冊板錄	筆寫本	1837년이후	28	172	43
17	藏板考	筆寫本	19세기	50		101
18	冊板錄(慶尙道各邑所在冊板)	筆寫本	1888년 이전	74		94
19	書冊目錄	筆寫本	1889년 이후	32	394	121

책판목록의 종합적 검토와 작성시기의 추정은 윤병태⁷⁾의 저술에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조정화⁸⁾에 의해서 기준에 알려진 이들 책판목록의 작성시기에 대한 재고가 이어졌다. 아울러 남권희⁹⁾에 의해서 일본의

7) 윤병태, 정형우 편,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윤병태, 정형우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8) 조정화, 「영남지방 책판목록에 대한 고찰-작성시기 고증을 중심으로-」, 『도서관』 51, 1996, 95-125.

天理大學 도서관에 소장된 『藏板考』가 발굴되었고, 이후로도 완영의 책판 목록에 대한 김소희의 연구¹⁰⁾에서 다시 수정하면서 진양하씨 창주후손가에 소장된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1권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수정된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책판목록 순서를 정하여 그 현황을 제시하였다. 수록된 책판의 내용과 책판목록의 작성시기를 보았을 때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책판목록은 『書冊目錄』으로 파악된다.

책판목록은 당시에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책판 소장자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위의 책판목록에 표시된 책판의 보존과 관련된 기록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단순히 책판의 명칭만을 기록한 것에서부터 책판의 상태, 규모, 소장처, 이관처 등은 물론 판각 시기나 보수상황,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의 수량을 적은 것도 있다. 이는 각 지역별 읍지의 책판조 기록과 함께 특정시기의 특정 지역에 소장된 책판의 보존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책판목록간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양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순차적으로 배열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책판의 내용을 비교 고찰해 본다면 각 지역의 책판의 생성과 소멸의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書冊目錄』과 거의 동일한 체재와 순서를 지니고 있는 『冊板錄(慶尙道各邑所在冊板)』에는 대구부 소장 책판으로 수록된 『靑泉集』 아래에 ‘移送陝川海印寺’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書冊目錄』에 반영되어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陝川條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巡營移來在海印寺’라고 써 놓았다. 따라서 『冊板錄(慶尙道各邑所在冊板)』에 작성된 내용이 『書冊目錄』에 수록된 내용보다 앞선 시점을 반영한 기록물임을 알 수 있다.

9) 남권희, 「천리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본 고서」, 『해외전적문화재 조사목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12.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의 綜合의 研究』,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4.12.

10) 김소희, 「책판목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완영의 출판문화-17~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문서학회 발표집』 2015. 11.

이상과 같은 대구 경상감영의 책판목록은 감영의 책판보존현황과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후기로 갈수록 그 종수는 유지되고 있고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책판목록별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배열규칙을 정하고 한 종씩 확인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부록 1]은 책판목록에 기록된 영영의 책판내용을 비교해 보기 위해 작성해 본 것이다. 대체로 『鏤板考』와 『書冊目錄』에서 내용이 빠짐 없이 갖추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地誌의 책판기록과 책판목록의 비교

대구 경상감영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기록은 책판목록 외에 각 지방의 地誌에도 있다. 지지에서 책판은 대부분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항목은 ‘冊板’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碑版’조에 각종 비문판과 함께 책판이 수록된 경우도 보인다. 예를 들어 『龍宮縣邑誌』의 『懲愆錄』 책판은 ‘碑版’조에 ‘金元發墓碣銘’ 등 5개 비문판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地誌에도 책판을 수록하면서 단순히 책판의 명칭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권수, 소용 종이 분량, 보관처와 이동상황, 보존·관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히 담고 있기도 하다. 기록의 형태는 대체로 小字雙行의 주석형태로 부기하는데, 일부의 경우 책판과 동일한 크기로 기록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주요 책판 목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지에 수록된 책판에 대해서는 그 작성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책판기록과 지지의 작성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 작성시점에 대한 오류를 범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책판목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식기록을 알기 위해서다.

대구와 경상감영을 포함하는 각종 地誌類는 서울대 규장각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대구의 지지로서 책판이 수록된 것으로는 道誌로 1832년경에 작

성된 『慶尙道邑誌』(奎666)가 있다. 이 지지의 저본은 1786년경에 편찬된 慶尙道の 각 군읍지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1871년에 편찬된 『嶺南邑誌』(奎 12173) 17책과 1895년에 편찬된 『嶺南邑誌』(奎 12174) 34책이 있으며 대부분 1786년경의 慶尙道邑誌, 1832년경의 慶尙道邑誌를 저본으로 삼았다. 1871년에 편찬된 『嶺南邑誌』(奎 12173)는 전국적인 읍지편찬 상송령에 의해 편찬·상송된 경상도의 각 邑誌·驛誌·牧場誌·鎭誌를 한데 모아 편한 慶尙道誌이다.

1871년의 저본은 1786년경의 慶尙道邑誌, 1832년경의 慶尙道邑誌 임이 알려져 있으므로 수록된 책판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嶺南邑誌』(奎 12174)는 1894년 11월에서 1895년 5월에 걸쳐 작성된 경상도 63개읍의 읍지를 의정부에서 모은 것으로 이전의 읍지를 거의 그대로 轉寫한 것이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786년경에 편찬된 각 읍지와 1832년경에 편찬된 慶尙道邑誌가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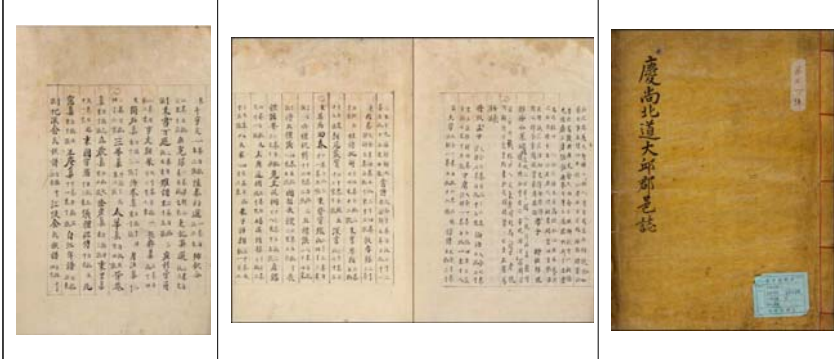
1899년(광무 3) 전국 읍지편찬사업의 일환으로 大邱府에서 만든 읍지도 있는데 (大邱府邑誌奎10838, 표지서명 慶尙北道大邱府邑誌) 戶口, 宦蹟, 營先生, 邑先生 등 몇개 조를 제외하고는 『嶺南邑誌』의 내용과 같다.

『대구부읍지』는 1907年 大邱府에서 편찬한 지지로 『嶺南邑誌』(奎 12173)에 실린 本府邑誌를 轉寫한 것이다. 본문에 간혹 수정 내용을 細註하고 책의 마지막에 邑誌補闕을 첨가하기도 하였지만 책판의 내용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다.

『慶尙道邑誌』(奎666)-1832년경 작성



『大邱府邑誌』(奎10838)-1899년경 작성



읍지나 군지에 나타나는 책판의 기록과 책판목록을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1796년 『鏤板考』와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의 작성시점을 전후한 시기에 판각된 것과 일치하는 책판명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아래 표-2 참조) 몇몇 책판은 『鏤板考』나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또한 간행연대를 확인해보면 대체로 19세기 중엽이전에 판각된 책판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1889년 이후에 작성된 『書冊目錄』에 모두 포함된다. 이는 곧

地誌에 수록된 책판의 처음 작성 시점이 1889년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구지역 지지에 수록된 약 60종의 책판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작성된 지지라 하더라도 19세기 중엽이전의 책판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전에 작성한 지지를 그대로 전사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편찬한 것이 주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성 당시의 책판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책판 목록 중에 원자료로 남은 마지막 기록은 『書冊目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시점에 가장 가까운 목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가 주도의 공식적 기록인 『누판고』와 함께 현재 전해지는 영영장판과의 비교대조도 가능하므로 책판의 진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와 『大邱府邑誌』의 내용 비교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大邱府邑誌』
家禮	
江陵金氏族譜	江陵金氏族譜白紙十四束
季漢集	
鷗浦集	
國朝喪禮補編	國朝喪禮六卷白紙十二束五張
杞溪俞氏族譜	杞溪俞氏族譜白紙十二束
南軒集	
論語大全, 諺解	論語大全七卷白紙二十束五張諺解四卷白紙七束十五張
唐鑑	唐鑑四卷白紙九束十一張
柳文	八大家四十卷白紙八十六束 大典通編五卷白紙十束
大明集禮	
大學大全, 諺解	大學大全一卷白紙二束二張諺解一卷白紙十八張
獨石集(桐華寺)	獨石集白紙二十束十三張 敦孝錄二十三卷白紙五十束
東國通鑑	東國寶鑑白紙五十三束

東醫寶鑑	東里集五卷白紙十一束 東醫寶鑑二十五卷白紙四十三束十七張 痘科彙篇二卷白紙六束
杜詩批解	杜詩批解十四卷白紙二十四束十二張
麗史提綱	麗史提綱十三卷白紙二十八束十五張
歷代通鑑纂要	
類苑叢寶	類苑叢寶二十卷白紙五十五束十張
六禮疑輯	六禮疑輯十四卷白紙三十二束二張
	陸奏約選一卷白紙二束
立巖集(龍淵寺)	立巖集白紙七束六張
萬病回春	萬病回春十卷白紙二十一束五張
孟子大全, 諺解	孟子大全七卷白紙十六束諺解七卷白紙十五束 無冤錄一卷 諺解二卷白紙七束
鳴阜集	
牧隱集	
閔文忠公奏議	礪溪隨錄十三卷白紙二十七束十五張 白江年譜白紙二束十張
百家類纂	
白洲集	北窓集白紙四束十張 史記英選三卷白紙六束十張 事文類聚七十卷白紙一百三十七束
事文類聚	
三綱行實	三峯集白紙十五束六張 喪禮備要二卷白紙三束十張 書傳大全十卷白紙二十二束諺解五卷白紙十一束
喪禮備要	
書傳大全, 諺解	
醒翁集	
聖學十圖	
訓義小學具諺解	訓義小學大全 續五禮儀四卷白紙八束五張
續五禮儀	
率庵稿	

睡谷集(桐華寺)	
袖珍韻	
習齋集	
詩傳大全, 諺解	詩傳大全十卷白紙二十三束十九張諺解七卷白紙十五束
禮記淺見錄	四張
五禮儀	雅頌二卷白紙三束十五張
原病式	五禮儀八卷白紙二十四束十張
月沙集	畏齋集六卷白紙十四束
陰崖集(龍淵寺)	月沙集二十二卷白紙四十六束
儀禮經傳	陰崖集白紙四束三張
醫學正傳	儀禮經傳白紙五十束
壹隱集	
莊陵志	
節酌通編	正菴集十卷白紙二十一束十張
二倫行實	
周易大全, 諺解	
朱書要類	周易大全十四卷白紙三十四束諺解五卷白紙十束十五張
中庸大全, 諺解	朱子語類五十卷白紙一百七束
定齋集	朱書要類六卷白紙十五束十五張
	朱書百選二卷白紙五束
	中庸大全一卷白紙四束五張諺解一卷白紙一束十八張
種德新篇	晉菴集白紙九束十張
太華集(龍淵寺)	千字文一卷白紙一束二張
漢書	太華集白紙五束四張
海峯集(桐華寺)	漢書三十卷白紙七十五束
闡義昭鑑	海峯集白紙十四束十張
靑陸集	

<p>聽訟書 鶴泉集</p>	<p>鄉禮合篇二卷白紙三束十張</p>
--------------------	---------------------

III. 『鏤板考』와 『書冊目錄』의 기록내용 분석

1. 『鏤板考』

『누판고』는 다른 책판목록과 다르게 책판목록에 해제를 수록하였으며, 어찬, 어정서 다음에 經,史,子,集의 사부분류에 따라 책판을 배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판의 보관이 官署, 書院, 寺刹, 私家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관서에서 보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과 『大邱府邑誌』를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누판고』를 『書冊目錄』과 대조해 보면 경상감영과 대구부의 책판 중에 南軒集, 閔文忠公奏議, 三綱行實圖, 醫學正傳의 4종 책판을 제외하고 모두가 『書冊目錄』에 포함된다. 그 만큼 『鏤板考』의 수록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면서 비슷한 양상으로 『書冊目錄』에 편성이 이루어진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누판고』는 정조20년(1796)에 완성되었지만 기록된 책판의 실제 판각시기는 대부분 그 이전시기 언제쯤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판각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간행기록과 일치하는 책판이 있을 때 그것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작성된 책판의 서목과 대조하여 같은 지역내에 같은 책판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 임란이후 부터 정조 20년(1796) 사이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각시기가 확실한

것은 정조년간의 인물이 편찬한 저서들과 정조의 어찬, 어정서일 것이다. 한편 책판에 ‘ㄸ’, ‘ㄹ’의 표시가 없는 것은 영조, 정조 무렵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반대로 ‘ㄸ’, ‘ㄹ’ 표시가 있는 것은 대체로 세월의 흐름이나 사용연한에 따라 닳아 없어진 경우이므로 임진왜란 이후 영조이전의 시기에 판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판고』는 책판목록 중에서 국가적으로 조사사업을 벌여 작성한 공식적 기록이다. 책판에 관한 기록은 편찬하는 사람이 직접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고을을 방문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보다도 朝廷에서 각 도의 감영으로, 그리고 각 감영에서 각 고을로 연락하여 보고하게 한 경우가 더 많았다. 『누판고』도 각 도의 관아나 민간에 소장하고 있는 판목의 수를 헤아리고 기록하여 중앙으로 올리게 하고 이를 다시 편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다.

『누판고』의 작성과정과 관련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누판고』가 편찬되기 한참 전부터 열읍의 책판목록을 성책해서 올리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1779 년 11 월 29 일에 규장각에서는 홍충감사 李秉鼎과 경상 감사 洪樂彬이 만들어 올린 열읍에 있는 冊板의 목록 가운데 누락되거나 종이 질이 매우 열악한데다 장정도 하지 않은 데 대해, 緘辭로 그 곡절을 엄하게 추고하고 관문을 내어 아뢰도록 명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홍충감사 이병정이 보고한 내용에는 어람할 자료인 줄 모르고 서둘러 바꾸는 즈음에 황급한 나머지 미처 장정하지 못하고 종이의 품질도 매우 열악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관문으로 ‘열읍에 있는 책판을 成冊하여 올리라’는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는¹¹⁾ 것으로 공식 적인 책판목록

11) 國譯日省錄, 1779 년 11 월 29 일 奎章閣啓言因洪忠監司 李秉鼎 慶尙監司 洪樂彬修上列邑所在冊板目錄中或有漏落或冊紙劣薄亦不粧縑緘辭重推其委折發關以啓事命下矣卽接洪忠監司 李秉鼎所報則以爲不善舉行致煩問備惶惶之極而當初關文中只曰列邑所在冊板修成冊以上云云故徒知其留置內閣未料其至登御覽初則成冊修成時魯西集一體入錄粧縑以上矣上送之後因尼城縣監來言魯西集則丙申因朝令毀板云故既聞之後一例入錄有所未安改修成冊急速換來之際事在忙遽未及粧縑紙品亦甚劣薄今奉關辭莫非不察之致云矣當初內閣關文內既有奉承傳行關之語而報辭全不明白所當請推而此與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 몇 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책자형태로 成冊한 문서 기록 속에는, 그 관아에서 소장한 책판이나 그 밖의 판목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전사되어서 여러 가지 책판목록을 편찬하는데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목록하고 각 책판의 해제까지 작성하는 것이 『누판고』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즈음에 경상도 책판과 관련하여 규장각에서, 경상감사 洪樂彬이 누락된 책판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아뢴 사실도 확인된다.

“경상 감사 홍낙빈이 엮어 올린 列冊에 있는 책판의 목록 가운데 더러 누락된 것이 있어, 본각이 즉시 관문을 내어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니, ‘신이 任所에 도착한 뒤에 날짜가 지연될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奉行하기에 쫓긴 나머지 미처 직접 검사하지 못하고 각 읍에서 보고한 데에 의거해서 成冊하여 올림으로써 이처럼 많은 책판이 누락되게 하여 問備를 받기까지 이르렀으니, 황공한 나머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後錄한 것 가운데 通鑑纂要是 역대의 통감을 종이 88束에 써넣은 것으로 전에 보고한 성책 가운데 기입하였으며, 靑泉集의 판본은 연전에 營에서 함천군 해인사로 移置하였으므로 해당 군의 서책 속에 기입하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6종의 서책이 누락된 곡절에 대해 대구부에 조사하니, 판관 具膺이 보고하기를, ‘杞溪俞氏族譜와 江陵金氏族譜는 다른 책과 차이가 있어서 감히 一例로 입록하지 못하였으며, 元朝五箴, 愚齋集, 貞武公集, 近思錄 등 4종은 연전에 慶州府로 移送하였으므로 입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기타 각 읍에서 누락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 소행이 매우 놀라워 이제 막 신속히 관문을 내어 한편으로 조사하여 엄히 처리하고 한편으로 改修하여 보고하도록 신칙하였습니다. 이 밖에 각 읍 가운데 더러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剋缺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낱낱이 列錄하여

入啓文書有異原報狀還爲下送更爲發關查問教以可謂罪上添罪自本閣更爲別關嚴查委折以啓

보고하도록 일체 엄히 신척하였습니다. 각 읍의 보고가 완료될 때를 기다려 성책하여 보고하려고 하는데 열읍에서 오가는 즈음에 지체될 우려를 면할 수 없으니 두려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¹²⁾하였다.

이 때 경상감사 홍낙빈이 언급한 靑泉集, 通鑑纂要 등의 책판들이 목록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누판고』에 기재된 영영 장관은 총 61種으로이는 언해본을 포함한 것이다. 御撰 3종, 御定 26종, 經部 11종[總經類 14종·禮類 4종], 史部 4종[通史類 3종·史評類 1종], 子部 10종[儒家類 6종·醫家類 2종·說家類 2종·類書類 1종], 集部 7종[總集類 1종·別集類 7종]이다. 주로 어정류 서적의 책판이 주를 이룬다. 즉 『누판고』에 나타난 경상감영 책판의 특징은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간행보다 중앙의 명에 의해 간행하거나 중앙의 활자본을 번각하는 형태의 간행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완영의 책판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 보면, 두 지역 모두 물산이 풍부하며 자체적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등의 간행활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관찰사의 관직을 이용해 간행한 간행본도 있으니, 당시에 인근 사찰에 보관했던 책판의 대부분이 그러한 간행배경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책판명으로 어찬류는 『警世問答』 등, 어정류는 『三綱行實圖』, 『五禮儀』 등, 경부는 『周易大全』, 『書傳大全』 등, 사부는 『漢書評林』, 『歷代通鑑纂要』 등, 자부는 『朱子語類』, 『聖學十圖』 등, 집부는 『唐宋八大家文鈔』, 『杜詩批

12) 『國譯日省錄』 정조3년 기해(1779, 건륭 44) 12월12일(임술) 本閣啓言慶尙監司 洪樂彬修上列邑所在冊板目錄中或有遺漏自本閣卽爲發關以啓事命下矣卽見所報則以爲卑職到任之後恐不無日子遲延之慮故急於奉行未及躬檢只憑各邑所報而修呈成冊致此許多冊板之見漏至承問備惶恐隕越後錄中通鑑纂要以歷代通鑑容入紙地八十八束錄入於前報成冊中靑泉集板本年前自營下移置於陝川郡海印寺故錄入於該郡書冊秩大邱所在六種書冊落漏委折查問於同府則判官具膺所報以爲杞溪俞氏族譜江陵金氏族譜與他冊有異故不敢一例入錄至於元朝五箴愚齋集貞武公集近思錄四種年前移送於慶州府故不得入錄他餘各邑之漏落不報者其所舉行極涉駭然今方星火發關一邊查問嚴處一邊改修報之意申飭知委此外各邑中或有遺漏者更加詳考毋論刑不刑一一列錄修報之意一體嚴飭待各邑齊報成冊修報計料列邑往復之際不免稽遲之慮不勝惶悚云矣

解』 등이 있다.

상세 항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누판고』의 경상감영 책판

연번	분류		서명
1	어찬(3종)		『警世問答』, 『雲漢篇』, 『百行源』
2	어정(26종)		『龍飛御天歌』, 『三綱行實圖』, 『五禮儀·序例』, 『周易諺解』, 『書傳諺解』, 『詩傳諺解』, 『大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中庸諺解』, 『東醫寶鑑』, 『小學諺解』, 『闡義昭鑑』, 『闡義昭鑑諺解』, 『續五禮儀·序例』, 『續五禮儀補編』, 『國朝喪禮補編·圖說』, 『訓義小學大全』, 『兩漢詞命』, 『明義錄』, 『明義錄諺解』, 『續明義錄』, 『續明義錄諺解』, 『欽恤典則』, 『史記英選』, 『朱書百選』
3	경부	충경류(7종)	『周易大全』, 『書傳大全』, 『詩傳大全』, 『大學大全』, 『論語大全』, 『孟子大全』, 『中庸大全』
		예류(4종)	『禮記淺見錄』, 『司馬氏書儀』, 『喪禮備要』, 『六禮疑輯』
4	사부	통사류(3종)	『漢書評林』, 『歷代通鑑纂要』, 『麗史提綱』
		사평류(1종)	『唐鑑』
5	자부	유가류(5종)	『朱子語類』, 『聖學十圖』, 『擊蒙要訣』, 『礪溪隨錄·補遺』, 『敦孝錄』
		의가류(2종)	『醫學正傳』, 『增補萬病回春』
		설가류(2종)	『種德新編』, 『種德新編諺解』
		유서류(1종)	『類苑叢寶』
6	집부	총집류(1종)	『唐宋八大家文鈔』
		별집류(6종)	『杜詩批解』, 『南軒集』, 『朱書要類』, 『節約通編·補遺』, 『鳴皋集』, 『閔文忠公奏議』

한편 『누판고』에는 영남관찰영의 소장이 아니라 대구 인근의 사찰인 동화사, 용연사, 용천사에 보관했던 책판도 있다. 『책판록』에는 이들이 모두 대구 부 항목에 들어있어서 경상감영과 소속을 달리하여 별도로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다 개인 문집이며 『서책목록』에도 이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기

재하고 있다. 대구부와 경상감영을 엄밀히 구분지는 것인지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표 4] 『누판고』의 대구지역 사찰 소장 책판

龍溪集	金止男	桐華寺	3첩	18장
海峰集	洪命元	桐華寺	4	2
獨石集	黃赫	桐華寺	2	6
睡谷集	李畬	桐華寺	20	
兼山集	兪肅基	桐華寺	12	17
陰崖集, 年譜	李紆	龍淵寺	4	4
三峰集	鄭道傳	龍淵寺	13	6
立巖集	閔齊仁	龍淵寺	6	9
太華集	南有常	龍淵寺	5	2
晉菴集	李天輔	龍淵寺	9	6
東里集	李殷相	龍淵寺	10	4
月沙集, 附錄, 別集	李廷龜	龍淵寺	43	15
畏齋集	李端夏	湧泉寺	13	3
白江年譜 附錄	不著	湧泉寺	2	1
正菴集	李顯益	湧泉寺	20	1
北窓古玉詩集	鄭碯	湧泉寺	4	14

2. 『書冊目錄』¹³⁾

책판목록에 수록된 내용은 단순히 책판의 명칭만을 기록한 것에서부터 책

13) 『서책목록』 관한 내용은 필자의 기존 발표문 「조선시대 영남지방 책판의 보관기록과 그 의미」, 『조선시대 책판의 특징과 가치』(2010)의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판의 상태, 규모, 소장처, 이관처 등은 물론 판각 시기나 보수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정시기의 특정 지역에 소장된 책판의 보존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소한 기록이라도 실물자료와 대조하거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書冊目錄』은 다른 책판목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풍부한 기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책판목록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현재 남아 있는 책판의 소종래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목록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히 『書冊目錄』이 주목된다. 그것은 『書冊目錄』이 경상감영에서 감영 소장 책판은 물론 경상도 각 지역의 책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상도 지역의 당시 책판 상황을 신빙성 있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書冊目錄』을 중심으로 경상감영관련 영남지역 책판의 기록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書冊目錄』은¹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경상도지역의 책판목록으로 경상감영을 비롯한 영남의 총 32개 지역 항목에 393종¹⁵⁾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소장책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14) 이 자료는 처음에 안춘근, 「한국출판고사단」, 『亞細亞學報』, 제1집, 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12.에서 소개되어 알려진 바 있다.

15) 여기에 영상에 소장된 1종의 목활자(木鑄字四萬一千六十一字)가 있는데 이를 더하면 354종이다. 이 목활자의 보관에 대해서는 ‘具穢在吏廳’이라는 기록이 있고, 활자의 제작에 대해서는 ‘金等內 寺洞 己丑七月日 新刻’이라는 기록이 있다. 김등내는 1888년 8월에 도입한 金明鎭 감사이고, 기축년은 1889년이다. 참고로 1889년 간기를 보이는 책으로 영영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제영신편』이 있다. 활자제작시기와 서적인쇄시점간에 약 2개월여 간극이 있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영영에서 간행된 목활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제영신편』간행에 쓰인 목활자가 영영의 목활자일 가능성이 있다.

[표-5] 『서책목록』의 지역별 소장책판 현황

		『書冊目錄』의 책판 수록내용	
---	--	-----------------	--

營上 121(종)	尙州 19	善山 14	密陽 2	宜寧 1	龍宮 2	梁山 1	金海 9
河陽 3	安東 39	禮安 25	蔚山 4	陝川 10	慶山 1	高靈 1	彦陽 1
河東 1	永川 14	居昌 4	巨濟 5	咸安 5	星州 36	青松 5	咸陽 7
固城 5	咸昌 6	慶州 25	淸道 13	晉州 9	知禮 3	義城 1	醴泉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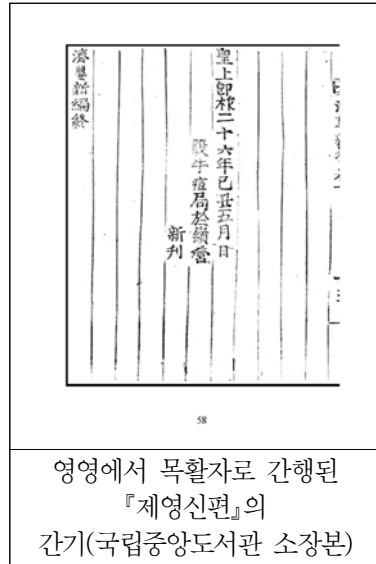
『書冊目錄』은 이 목록에 날인된 ‘慶尙道道觀察使之章’이라는 官章으로 볼 때 경상도 감영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도내의 각 지역에 소장된 책판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營上 책판목록에 책판의 新刻, 또는 重刻, 修補를 담당한 ‘等內’의 주체가 1869년~1888년 사이에 부임한 인물¹⁶⁾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1888년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해

16)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2009.에서는 이 책 ‘金等內 蓮洞 庚午5月’과 ‘金等內 蓮洞 庚午3月’의 김등내를 1869년 8월에 도임한 金世鎬 감사로, ‘南等內 寺洞 乙酉7月日’, ‘南等內 寺洞 丙戌2月日’의 남등내를 1884년 11월에 부임한 南一祐 감사, ‘金

볼 수 있다.



『書冊目錄』에 날인된
[慶尙道道觀察使之章]



영영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제영신편』의
간기(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서책목록』은 실제 해당지역 소장 책판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營上 책판 가운데 『杜詩批解』~『畏齋集』의 총 36종에 대해서 “雖載目錄 或元無一板 或闕失, 或頑不用, 或散板”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雖載目錄’이 바로 이 『서책목록』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목록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서책목록』을 작성할 당시 실제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책판의 상태와 소장처, 이동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는 점도 이 목록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서책목록』은 크게 경상도감영을 뜻하는 ‘營上’과 감영의 관할지역을 뜻하는 ‘各邑所在’의 2부분으로 구별되어 있고, ‘각읍소재’에 尙州~醴泉까지, 총 31개 지역에 소장된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형태는 절첩, 43면으로 양면에

等內 寺洞 己丑7月’의 김등내를 1888년 8월에 도입한 金明鎭 감사로 확인하였다.

필사되었는데, 앞면은 營上에서 禮安까지, 뒷면은 앞면에 이어 禮安에서 醴泉까지가 지역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문 면은 선으로 구획하지 않고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책판에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제1단은 책명과 권수, 제2단은 책판의 인쇄에 소용되는 종이의 張數, 제3단은 책판의 소장처와 보존관리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3단에 기록된 책판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營上은 그 기록이 다른 지역 책판에 대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영상의 총 121종의 책판 가운데 소장처를 표시한 것은 25종으로, 그 소장처는 桐華寺가 12종, 龍淵寺가 10종, 湧泉寺가 3종이다. 이외 62종에 대해서는 新刻 또는 重刻, 修補의 주체와 그 시기가 표시되어 있다. 그 나머지는 별도의 표시가 없다. 다음은 營上 책판에 대한 보존관리에 관한 기록이다.

- ① 論語大全~周易大全諺解(14종): 庚午五月 日 蓮洞 金等內 或新刻 或重刻 或間間修補(앞 제1~2면)
- ② 禮記: 南等內 寺洞 乙酉七月 日 落板四立新刻(앞 제5면)
- ③ 綱目: 金等內 蓮洞 庚午五月日 落板四立新刻(앞 제5면)
- ④ 史略大全: 落板一立新刻 南等內 寺洞 丙戌二月日(앞 제6면)
- ⑤ (史略大全)諺解: 南等內 寺洞 丙戌二月日 落板九十八板一片新刻(앞 제6면)
- ⑥ 通鑑: 金等內 蓮洞 庚午五月 日 一百七十九板新刻 二十七板重刻(앞 제6면)
- ⑦ 麗史提綱: 金等內 蓮洞 庚午五月 日 六板新刻(앞 제7면)
- ⑧ 朱書要類: 金等內 蓮洞 庚午五月 日 四板新刻(앞 제7면)
- ⑨ 雅誦: (金等內 蓮洞 庚午五月 日 四板新刻)一板新刻(앞 제8면)
- ⑩ 萬病回春: 金等內 蓮洞 庚午五月 日 八板新刻(앞 제9면)
- ⑪ 杜詩批解~畏齋集(36종): 雖載目錄 或元無一板 或闕失, 或頑不用, 或散板(앞 제15면)
- ⑫ 朱書百選, 虞註杜律(2종), 木鑄字 41,061자(具櫪在吏廳): 金等內 寺洞 己丑七月日 新刻(앞 제18면)

⑬ 白沙集~大千字文(12종): 在桐華寺(앞 제20면)

⑭ 月沙集~水北集(10종): 在龍淵寺(앞 제22면)

⑮ 北窓集~白江年譜(3종): 在湧泉寺(앞제23면)

위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元無一板, 闕失, 頑不用, 落板, 散板’ 등의 기록이 보인다. 책판이 남아 있지 않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元無一板’, 그 원인이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闕失’로, 책판 표면이 마멸되어 인쇄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頑不用’으로 표시하였다. ‘落板’과 ‘散板’은 명확하지 않으나, ‘散板’을 책판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거나, 또는 단순히 듸성듬성하게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책판의 전후반 일부가 남아 있지 않아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판각 또는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新刻, 重刻, 修補’ 등이 있다. ②의 ‘落板四立新刻’과 같이 동일한 종의 일부 판만 新刻하거나, ⑤의 ‘一百七十九板新刻 二十七板重刻’과 같이 동일한 종의 일부는 新刻하고 일부는 重刻한 경우도 보인다. ①의 ‘間間修補’는 해당 종 14종의 책판에 대한 기록으로, 인쇄면 상태는 양호하지만 책판의 광곽, 마구리 등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수한 것 정도로 추정된다.

위 기록 가운데 판각이나 보수의 주체를 표시한 것은 이 『서책목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체자로 ‘等內’¹⁷⁾가 언급되어 있는데, ‘蓮洞 金等內’와 ‘寺洞 南等內’가 그것이다. 연동 김등내는 2인으로 ③, ⑥~⑩의 경오년에 재임 중인 김등내는 1869년 8월에 도입한 金世鎬 감사이고, ⑫의 기축년에 재임 중인 김등내는 1888년 8월에 도입한 金明鎭 감사이다. 남등내는 1884년 11월에 부임한 南一祐 감사이다.¹⁸⁾ 즉 이들 세 감사가 재임 중에 해당 책판을 판각하거나 보수하였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또 위 예문에서 가

17) 등내는 ‘재임 기간 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수령이나 감사와 같이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료를 말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18) 남권희, 위 논문 참조.

장 늦은 시기는 ⑫의 ‘기축7월’인데, 이는 1889년에 해당하며, 이는 이 책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즉 이 목록은 최소한 김명진의 다음 감사 재임 중에 작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1889년 7월 이후가 된다. 가장 많이 책판을 보수한 감사는 1869년 8월에 도입한 金世鎬 감사로 1870년 5월에, 論語大全 등 228판이¹⁹⁾ 넘는 책판을 보수하였다.

[표-6] 金世鎬 감사의 1870년 책판보수 내용

論語大全 7卷	白紙 20束 10張	庚午5月日 蓮洞 金等內 或新刻 或重刻 或間間 修補
論語諺解 4卷	白紙 8束 3張	
孟子大全 7卷	白紙 16束	
孟子諺解 7卷	白紙 15束	
中庸大全 1卷	白紙 4束	
中庸諺解 1卷	白紙 1束 15張	
大學大全 1卷	白紙 2束 10張	
大學諺解 1卷	白紙 18張	
詩傳大全 10卷	白紙 24束	
詩傳諺解 7卷	白紙 25束 4張	
書傳大全 10卷	白紙 21束 5張	
書傳諺解 5卷	白紙 11束 15張	
周易大全 14卷	白紙 33束 15張	
周易諺解 5卷	白紙 11束 10張	
通鑑 15卷	白紙 23束	金等內 蓮洞 庚午5月日 179板新刻 27板重刻
朱書要類 6卷	白紙 15束 10張	金等內 蓮洞 庚午5月日 4板新刻
綱目 76卷	白紙 165束	金等內 蓮洞 庚午5月日 落板4立新刻
麗史提綱 13卷	白紙 28束 15張	金等內 蓮洞 庚午5月日 6板新刻
萬病回春 10卷	白紙 21束 5張	金等內 蓮洞 庚午3月 8板新刻

소장처는 다른 지역의 소장처 표시 방식과 마찬가지로 ‘在桐華寺, 在龍淵寺, 在湧泉寺’ 등과 같이 건물의 명칭만 간략히 표시하였다. 이들 사찰은 모두 대구부에 속해 있는데 본 책판은 ‘영상’과 ‘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면을

19) 228판은 사서삼경을 제외한 수치로 사서삼경에는 전체적으로 ‘或新刻 或重刻 或間間修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신각, 중각, 보수한 판은 228판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띄워 간격을 벌여놓아 구분하고 있고 ‘대구부’로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 ⑩杜詩批解~畏齋集까지 총 36종에 대해서는 “雖載目錄 或元無一板 或元無一板 或闕失 或頑不用 或散板”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대부분이 『누판고』에 수록되었던 책판으로 오래되고 마모가 심하거나 지금은 없는 책판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서책목록』은 현재 영상에 남아 있는 책판은 물론이고 이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책판까지 기존 목록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附記함으로써 후일에 참고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책판으로 인쇄하여 현재까지 전해지는 전적들을 인쇄한 책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려 주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감영은 아니지만 참고로 ‘각읍소재’ 항목의 책판관리 기록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각 책판에 대하여 소장처를 주로 병기하였으며, 이 외에 책판의 유무나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소략하게 보이고 있다. 먼저 소장처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로 책판의 종수와 소장처를 정리하면 [표-7] 과 같다.

[표-7] 『書冊目錄』 ‘各邑所在’ 소장처 유형별 각 기관 소장책판 현황

소장처 구분	소장기관(판종)
書院(15개 지역, 44개 서원, 122종)	尙州:道南書院(1)·玉成書院(3)·興巖書院(2)·西山書院(2)·近巖書院(3) ²⁰⁾ ·道南書院(1), 善山:金烏書院(3)·洛峯書院(4)·松山書院(3)·松山書院(1), 密陽:禮林書院(2), 龍宮:三江書院(1), 安東:周溪書院(3)·屏山書院(6)·虎溪書院(2)·三溪書院(1)·默溪書院(3)·魯林書院(6), 禮安:陶山書院(24), 永川:臨臯書院(4)·梅谷書院(2)·道峯書院(5)·橫溪書院(1), 咸安:西山書院(3)·德巖書院(1)·松亭書院(1), 星州:柳溪書院(1)·晴川書院(2), 青松:松鶴書院(1), 咸陽:藍溪書院(2)·柏淵書院(2)·唐洲書院(1), 咸昌:栗谷書院(3), 慶州:龜江書院(1)·玉山書院(8)·龍山書院(1)·東江書院(1)·西岳書院(1), 清道:紫溪書院(2)·西巖書院(1), 晉州:德川書院(2)·宗川書院(2)·龍塘書院(2)
鄕校(2개 지역, 2개 향교, 6종)	密陽:密陽鄕校(1), 巨濟:巨濟鄕校(5)

寺刹(7개 지역, 12개 사찰, 55종)	尙州:南藏寺(1)·龍興寺(1)·龍興寺(1), 河陽:環城寺(3), 安東:鳳亭寺(5), 陝川:甫仁庵(9)·海印寺(2, 巡營移來), 永川:世德寺(1), 星州:雙溪寺(26)·武屹庵(6)·安峯寺(2), 晉州:靑谷寺(1)
官廳(7개 지역, 5개처, 32종)	善山:官庫(1), 蔚山:兵營鎮撫廳(1)·本府人吏廳(1), 星州:官上(2), 咸昌:吏廳(1), 慶州:府上(14), 淸道:官上(10), 晉州:兵營(2)
개인, 문중(3개 지역, 4개처, 4종)	善山:李司諫宅(1), 龍宮:茂村李氏門中(1), 知禮:上佐院李參奉宅(1)·李氏門中(1)
기타(4개 지역, 4개처, 13종)	尙州:中北面(1), 永川:浩然亭(9), 靑松:草溪(2), 晉州:班城面(1)

표에서 보듯이 각읍의 책판 소장기관은 서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총 15개 지역의 44개 서원에 122종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에 반해 향교는 밀양향교에 1종과 거제향교에 5종이 전부이다. 사찰의 경우 7개 지역의 12개 사찰에 55종이 보관되어 있다. 지역과 사찰 및 판종의 수가 이에 불과한 것은 이 목록이 불경판을 수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관청은 官上이나 府上, 官庫와 같이 구체적인 기구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외에 일부책판에 대하여는 蔚山 兵營鎮撫廳과 人吏廳, 晉州兵營, 咸昌吏廳과 같이 기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경우 李司諫宅, 上佐院李參奉宅과 같이 특정 가를 표시하거나 茂村李氏門中이나 李氏門中과 같이 문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지명을 소장처로 표시한 경우도 있는데, 尙州의 ‘中北面’, 永川의 ‘浩然亭’, 靑松의 ‘草溪’, 晉州의 ‘班城面’과 같은 경우이다.

다음은 ‘各邑所在’ 책판의 소장처 표시 외에 책판의 상태, 유무, 소장처 이동 등 관리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20) ‘咸昌’조에 東國通鑑提綱, 寓庵集에 대하여 ‘在尙州近巖鄉賢祠’라고 표시하였다.

[표-8] 『書冊目錄』 ‘各邑所在’ 책판의 관리기록

지역	책판명	판종수	내용
金海	博學愼問, 淸江草書, 忠烈錄	3	本板闕失
靑松	李評事集	1	板本闕失
義城	丹巖奏議	1	巡營移來板多闕失
金海	小學諺解	1	破傷
安東	三綱實行	1	巡營移去懸註 而營門無此板
安東	小學諺解	1	禮安移去
禮安	小學諺解	1	安東移來

김해의 博學愼問, 淸江草書, 忠烈錄 3종 책판과 청송의 李評事集은 燒失되어 ‘冊板闕失’로 표시되어 있다. 의성의 丹巖奏議은 巡營에서 의성으로 옮겨 온 판인데 闕失이 많이 된 판임을 ‘板多闕失’로 표시하였다. 김해의 小學諺解는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파손된 상황을 ‘破傷’으로 표시하였다. 안동에 있던 三綱行實은 巡營에서 가지고 가서 註를 달았으나 현재 營門에 이 책판이 없다고 하였다. 소학언해는 책판의 이동 상황이 표시되어 있는데, 예안의 소학언해에 대해서는 안동에서 옮겨 왔다고 표시되어 있고, 안동의 소학언해에 대해서는 예안으로 옮겨 갔다고 표시되어 있다. 또 인쇄에 소용되는 종이가 ‘백지 14속 8장’으로 양쪽 모두 동일하게 기록된 점으로 볼 때 이 두 책판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책판의 이동 상황을 서로 다른 항목에 상호 참조가 되도록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것은 이 목록의 작성이 각 지역에서 보고된 자료를 단순히 전사한 것이 아니라 상호 검토를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현존하는 경상감영 책판

이상과 같은 책판목록과 함께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그 기록

내용에 부합하는 책판을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준에 영영장판은 서울대 규장각에 17종²¹⁾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서삼경과 언해를 포함한 14종에 『상례비요』,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소학언해』를 포함한 것이다. 규장각 소장자료 중에는 任鍾의 문집인 『鳴臯集』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書冊目錄』에 수록되어 있고 발문을 1704년 경상도관찰사朴權과 1726년에 경상도 김천찰방任述이 작성하였다.

규장각외에도 대구 龍淵寺에 『儀禮經傳通解補』 155판, 金鎭圭의 『竹泉集』 91판, 南有常의 『太華文集』 21판, 정도전의 『三峰集』 1판이 남아있다. 특히 삼봉집은 1791년 증보판인데 대구 龍淵寺에 소장되어 있던 목판이 판고가 거의 무너지자 廟庭으로 移運의 허락을 받아 옮겨서 지금은 경기도 평택 종가에 목판 14권 228판이 남아있다. 옮길 때 부족한 34장을 보충하여 다시 속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1914년 삼간속간된 『삼봉집』 권말의 발문²²⁾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영남지방 특히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 책판목록을 정리하고 기록된 내용을 1차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특히 『鏤板考』, 『書冊目錄』를 중심으로 책판이 수록된 영영의 책판목록을 중심으로 그 작성시점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경상감영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 각종 책판

21) 김윤제, 「규장각 소장책판의 내용과 소장처 분석」, 『태동고전연구』 32집(2014.6) p.254.에서 이미 기준에 알려진 16종에 간기가 드러나지 않는 『주역전의대전』 1종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판심의 형태적 특징과 남은 책판과의 관련성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간기가 없는 『주역전의대전』이 영영장판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22) 『삼봉집』 三刊本 卷末 “定宗辛亥(1791) 命重刊 仍藏板于大邱府南龍仁寺者 一百二十二年 壬子(1912)板閣傾覆 翌年請願於道長官 承認移運 計其數零三十四張 賜諡教旨 與致祭文 并補續刊 崇奉于廟庭 時甲寅(1914)冬十月 日也”

목록을 정리하고 기록된 내용을 일부분 분석하여 두 목록이 지니는 의미를 보이고자 한 것이다. 두 책판 목록 중에 『누판고』는 관 주도의 공식적 기록으로서, 『書冊目錄』은 원자료로 남은 마지막 기록으로서 특히 주목된다. 현 시점에 가장 가까운 목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현재 전해지는 영영장판과의 비교대조도 가능하므로 책판의 진정성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경상도는 전라도와 더불어 한국의 인쇄문화사에서 큰 기동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많은 양의 서적을 간행해냈다. 규장각이나 대구지역의 사찰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더라도 관판인쇄의 주역으로서 경상감영에서 판각된 책판의 많은 부분은 현재 실물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책판목록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경상감영 책판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상감영판의 정확한 범주 설정도 필요한데 책판 목록에도 혼재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목록간의 변화와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경상감영의 책판이 변화되는 상황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논제다.

※ 이 논문은 2017년 6월 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소희, 「책판목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완영의 출판문화-17~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문서학회 발표집』 2015. 11.
- 김윤식, 「누판고의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 김윤제, 「규장각 소장책판의 내용과 소장처 분석」, 『태동고전연구』 32집 (2014.6) p.254.
-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 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문화박물관, 2009.
- 남권희, 「三五庫重記로 본 箕營의 出版文化」, 『조선시대 지방감영의 인쇄출판 활동』, 청주고인쇄문화박물관, 2009
- 박 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역사적 가치부여를 위한 선행작업」, 『조선시대 책판의 특징과 가치』2010. 12.
- 안춘근, 「한국출판고사단」. 『亞細亞學報』. 제1집, 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12.
- 옥영정, 「조선시대책판은 어떻게 관리되었나」.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2014.
- 옥영정, 「冊版目錄을 통해본 朝鮮時代 善山地域의 木板印刷文化 研究」, 『書誌學研究』, 제34집 (2006,8)
- 옥영정,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族譜, 童蒙書, 地誌, 日記類 등 책판의 성격과 가치」, 『대동문화연구』 70집(2010. 6)
- 옥영정, 「조선시대 영남지방 책판의 보관기록과 그 의미」, 『조선시대 책판의 특징과 가치』, 2010. 12.
- 유탉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考』. 釜山: 世宗出版社, 2001.
- 윤병태, 「韓國地誌 속의 冊板에 대하여」, 『古書研究』 제12호, 1995
- 윤병태, 정형우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임기영.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 임노직, 「서원 판각 책판의 현황과 내용」,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목판 목록집』, 2007.

조정화, 「조선조 후기 영남관판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조정화, 「영남지장 책판목록에 대한 고찰-작성시기 고증을 중심으로-」, 『도서관』 51, 1996, 95-125.

<웹사이트>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1.jsp>)
문화재청(<http://www.cha.go.kr/index.html>)
유교넷(<http://www.ugyo.net>)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MAN/index.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한국국학진흥원(<http://www.koreastudy.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http://yoksa.aks.ac.kr/>)

Abstract

**The status of the woodblock list and the contents
analysis of preservation of Gyeong-sang-Gam-yeong**
- Focused on "Noupango" and "Woodblock List" -

Ok, Young-jung

The woodblock is a living piece of evidence that contemporarily testifies to the lives of everyone involved in the production, dissemination and acceptance of knowledge. The list of the woodblocks related to the woodblocks is organized after the first woodblock is created, and the list of the bookbindings that summarize the status of each region or place of residence is made after the first bookbind is created, And the type of records associated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woodblock,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the woodblock, the replacement and dismantling through the woodblock, and so on. The list of woodblock is a document which can confirm the cross section of all the books that have been published or kept in the province since the woodblock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are recorded by region at the time of writing. Daegu's Gyeong-sang-Gam-yeong also includes the realities of the woodblock listed on these lists, and most of the remains of the book were left in the book at that time. In this study, we compiled a list of the woodblock in which the woodblocks are recorded mainly in Yeongnam

province, especially Gyeong-sang-Gam-yeong. Among them, the woodblocks of Daegu and Gyeong-sang-Gam-yeong in "Nupango" and "Woodblock List" were examined. Among the two book catalog lists, "NuPangyo" is the official record of the museum, and "Woodblock List" is noted as the last record remaining as the original data. It is possible to give meaning to the list closest to the present time, and it is also possible to compare with the current version of yeong-yeong-jang-pan, which will help to secure authenticity of the woodblock.

Key word : Gyeong-sang-Gam-yeong, yeong-yeong-jang-pan, woodblock, Woodblock List, Nupango, publication of the w

* 부록1 대구 경상감영 책판이 수록된 주요 책판목록의 비교

慶尙道 冊板 (39-42)	冊板置簿冊 (48-52)	完營冊板目錄 (28)	各道冊板目錄 (40)	各道冊板目錄 (60-71)	樓板考 (71-81)
營上, 大丘	營上, 大丘	慶尙監營上 (28)	大邱(신, 구판)	慶尙監營, 大丘	영남관찰영 (71-81)
		江陵金氏族譜		江陵金氏族譜(大丘)	
	警民編(營上)		兼山集(舊板)	擊蒙要訣(監營) 兼山集(大丘)	擊蒙要訣 兼山集(大邱桐華寺)
	溪?集(376)(大丘)			警世問答(大丘)	
桂苑筆耕(營上)	桂苑筆耕(大丘, 營上)			庚申司馬榜目(監營)	
季漢書(營上)	古文百選(大丘)		國朝喪禮補編(朽傷)		國朝喪禮補編
古文百選(營上)		杞溪俞氏族譜 南溪集 (海印寺上朴世采著)	奎章全韻(新板)		
毆浦集(營上)	南軒集(大丘) 論語(大丘)		論語具解(新板)	國朝喪禮補篇(監營)	南軒集 論語大全, 諺解
	農家集(大丘) 農家集(營上) 唐鑑(大丘)	唐鑑		杞溪俞氏族譜(大丘)	
南軒集(營上)			(唐宋)八大家(舊板)	論語大全, 諺解(監營)	唐鑑 唐宋八大家文鈔
論語(營上)	唐詩鼓吹(大丘, 營上)			丹巖奏議(監營)	
唐鑑(營上)	大明集禮(大丘)			唐鑑(監營)	
唐詩鼓吹(營上)				(唐宋)八大	

大 明 集 禮(營上)		獨石集(黃赫 著)	大學具解(新 板)	家(新刊秩)	大學大全, 諺解
大學(營 上)	東國通鑑(大 丘)		敦孝錄(舊板)		獨石集(大 丘桐華寺) 敦孝錄
	峒隱集(大丘)		東里集(朽傷)	大學大全, 諺 解(監營)	東里集(大 丘龍淵寺)
東 國 通 鑑(大丘)	杜詩(大丘)	杜詩批解	東醫寶鑑(舊 板)	獨石集(大 丘)	東醫寶鑑
	樂靜集(大丘)		杜律分韻(新 板)		杜詩批解
	麗史提綱(大 丘)	麗史提綱 歷代通鑑	痘疹會通(新 板)	東醫寶鑑(監 營)	
樂 靜 集 (大丘)	柳文(大丘)		麗史提綱(舊 板)	杜詩批解(監 營)	兩漢詞命 麗史提綱 歷代通鑑纂 要 龍溪集(大 丘桐華寺)
琅 玕 書 (營上)		立岩集(閔齊 賢著)			類苑叢寶 六禮疑輯
麗 史 提 綱(營上)	孟子(大丘)	鳴臯集		麗史提綱(監 營) 歷代通鑑纂 要(監營) 龍溪集(大 丘)	立巖集(大 丘龍淵寺) 增補萬病回 春 孟子大全, 諺解 鳴臯集 明義錄, 諺 解
柳 文(營 上)	牧隱集(大丘)		萬病回春(舊 板) 孟子具解(新 板)	類苑叢寶(監 營) 六禮疑輯(監 營)	
孟 子(營 上)	白洲集(大丘)				

牧隱集 (大丘)	兵將說(營上) 報典集(大丘)		礪溪隱錄(舊板)	立巖集(大丘) 萬病回春(監營) <u>孟子大全</u> , 諺解(監營) 鳴阜集(監營) <u>明義錄</u> , 諺解(新刊秩)	閔文忠公奏議 <u>礪溪隱錄</u> , 補遺 白江年譜(大丘湧泉寺)
百家類纂(營上)	四溟集(大丘) <u>事文類聚</u> , 圖(大丘)	四書具諺解 三經具諺解	北窓集(舊板) 史記英選(舊板) 史略(新板)	礪溪隱錄(新刊秩) 白江年譜(大丘)	百行源 <u>北窓詩集</u> , <u>古玉詩集</u> , 附錄(大丘湧泉寺) 史記英選
白洲集 (大丘)	三經諺解(大丘)	喪禮備要 醒翁集(金德誠著)	事文類聚(新板) 史漢一統(新板)	百行源(監營) 兵學指南(監營)	司馬氏書儀
四溟集 (大丘) 事文類聚(營上)		續五禮儀率菴稿 睡谷集(李畬著)	喪禮備要(舊板) 書傳具解(新板)		三綱行實圖 三峰集(大丘龍淵寺)
<u>書傳</u> , 諺解(營上)		習齋集	小學具解(新板)		喪禮備要書傳大全, 諺解 聖學十圖

受 敎 輯 錄(營上)	詩大全, 諺解 (大丘) 詩藪(大丘)	禮記淺見錄 五禮儀	續五禮儀(舊 板)	三韻聲彙(新 刊秩) 喪禮備要(監 營) 書傳大全, 諺 解(監營)	小學諺解 續明義錄, 諺解 續五禮儀
	易學啓蒙(大 丘, 營上)				
	五柳先生集 (營上) 吳子(營上)				
	月沙集(大丘)				
詩 傳, 諺 解(營上) 詩 藪 (營 上)	月沙集(大丘)	原病式 月沙集(李廷 龜 著)	詩傳具解(新 板)	續明義錄, 諺 解(新刊秩) 續五禮儀(監 營)	睡谷集(大 邱桐華寺)
	易學啓 蒙(營上)				
	儀禮經傳(大 丘)				
	節酌通編, 寶 編(大丘)				
月 沙 集 (營上)	趙子杜詩(大 丘)	節酌通編	五禮儀(舊板)	睡 谷 集 (大 丘)	(御製)雲漢 篇 禮記淺見錄 五禮儀
月 沙 集 (營上)		月沙集(舊板)	詩傳大全, 諺 解(監營)	兩漢詞命(監 營) 御製雲漢篇 (監營)	畏齊集(大 邱湧泉寺) 龍飛御天歌
月 沙 集 (營上)		五 禮 儀 (監	五 禮 儀 (監	五 禮 儀 (監	陰崖集, 年

儀禮經傳(大丘)	趙註杜律(大丘,營上)	朱書要類		營)	謹(大丘龍淵寺)
壹谷集(營上)	酒德頌(營上)			溫公書儀(監營)	醫學正傳
	周易大全, 諺解(大丘)			龍飛御天歌(監營)	
帝王韻紀(營上)		清陸集	周易具解(新板)	月沙集(大丘)	節酌通編, 補遺
趙註杜律(營上)	中庸(大丘)	太華集(南有常著)	朱子語類(舊板)	陰崖集(大丘)	正菴集(大邱湧泉寺)
	青虛集(大丘)		朱書類要(舊板)		種德新編, 諺解
			朱書百選(舊板)		
周易大全, 諺解(營上)	風雅(376 卒)(大丘, 營上)	海峯集(洪命元著)	中庸具解(新板)	節酌通編(監營)	周易大全, 諺解
	韓文(大丘)		晉巖集(朽傷)	正庵集(大丘)	朱子語類
中庸(營上)	海峰集(大丘)	訓義小學	太華集(舊板)	種德新篇大全, 諺解(監營)	朱書要類
	皇極經書(大丘)		通鑑(新板)		朱書百選
			八子百選(新板)		中庸大全, 諺解
				周易大全, 諺	晉菴集(大邱龍淵寺)
					闡義昭鑑

경상감영 책판목록의 현황과 기록내용 분석(옥영정)

聽訟書 (營上)			漢書(舊板) 海峯集(舊板)	解(監營) 朱子語類(新刊秩) 朱書類要(監營) 朱子敬齋箴(監營) 朱子篇(監營) 中庸大全, 諺解(監營)	太華集(大邱龍淵寺)
風雅(營上)					
河濱集 (營上)			訓義小學具解(新板)		漢書評林 海峰集(大丘桐華寺)
韓文(營上)					
海峯集 (大丘)				闡義昭鑑(監營) 千字(新刊秩)	訓義小學大全
玄洲集 (營上)				太華集(大丘)	欽恤典則
				漢書(監營) 海峯集(大丘)	
				訓義小學大	

				全,諺解(監營) 欽恤典則(新刊秩)	
--	--	--	--	-----------------------	--

嶺湖列邑所在冊 板目錄 (64-71)	三南所藏冊板 (31)	諸道冊板錄 (31)	書冊目錄 (107-120)
大丘(64-71) 家禮 江陵金氏族譜 季漢集 鷗浦集 國朝喪補編 杞溪俞氏族譜 南軒集 論語大全,諺解 唐鑑 大明集禮 大學大全,諺解	慶尙監營大丘(31) 江陵金譜 杞溪俞譜 南溪集 唐鑑 (唐宋)八大家	慶尙監營(31) 江陵金氏族譜 杞溪俞氏族譜 南溪集 唐鑑 (唐宋)八大家	 江陵金氏族譜(在桐華寺) 綱目 擊蒙要訣 兼山集(在桐華寺) 警世問答原篇 庚申司馬榜目 國朝喪禮補編 奎章全韻 杞溪俞氏族譜(在桐華寺) 論語大全,諺解 唐鑑 (唐宋)八大家 大明律 大典通編 大千字文(在桐華寺) 大學大全,諺解

獨石集(桐華寺)	大華集 獨石集	大華集 獨石集	獨石集(在桐華寺) 敦孝錄 東國通鑑 東里集(在龍淵寺)
東國通鑑			
東醫通鑑			東醫寶鑑 痘科彙編
杜詩批解	杜詩 杜詩批解	杜詩 杜詩批解	杜詩批解 杜律分韻 痘疹會通 樂靜集
麗史提綱 歷代通鑑纂要	麗史提綱 歷代通鑑	麗史提綱 歷代通鑑	麗史提綱 歷代通鑑纂要 龍溪集(在桐華寺)
柳文 類苑叢寶 六禮疑輯			類苑叢寶 六禮疑輯 六典條例 陸奏約選 立巖集(在龍淵寺)
立巖集(龍淵寺) 萬病回春 <u>孟子大全, 諺解</u> 鳴皋集	立石集 萬病回春 鳴皋集	立石集 萬病回春 鳴皋集	萬病回春 孟子大全, 諺解 鳴皋集 明義錄大全, 諺解 牧隱集 無冤錄, 諺解
牧隱集			
閔文忠公奏議			礪溪隱錄
百家類纂			白江年譜(在湧泉寺) 白沙集(在桐華寺) 白洲集 百行源
白洲集			兵學指南

北窓集(在湧泉寺)			
史記英選			
史略大全,諺解			
事文類聚			
史補略			
史漢一統	四書具諺解	四書具諺解	
三綱行實	三經具諺解	三經具諺解	
喪禮備要	喪禮備要	喪禮備要	三禮儀(在桐華寺)
<u>書傳大全,諺解</u>	醒翁集	醒翁集	三峯集(在龍淵寺)
醒翁集			三韻聲彙
聖學十圖	小學		喪禮備要
			書傳大全,諺解
續五禮儀	續五禮儀	續五禮儀	聖學十圖
率庵稿	率菴集	率菴稿	小學大全,諺解
睡谷集(桐華寺)			小華外史(在桐華寺)
			續明義錄大全,諺解
袖珍韻	習齋集	習齋集	續史略
習齋集			續五禮儀
<u>詩傳大全,諺解</u>			宋朝名臣錄
			睡谷集(在桐華寺)
			水北集(在龍淵寺)
			崇儒重道綸音
			詩傳大全,諺解
			雅頌
			兩漢詞命
			御製雲漢編

경상감영 책판목록의 현황과 기록내용 분석(옥영정)

禮記淺見錄 五禮儀	禮記淺見錄 五禮儀	禮記淺見錄 五禮儀	禮記 五禮儀 溫公書儀(사마온 공사의) 畏齋集 龍飛御天歌 虞註杜律
原病式 月沙集	原病式 月沙集	原病式 月沙集	月沙集(在龍淵寺)
陰崖集(龍淵寺)			諭中外綸音 陰崖集(在龍淵寺)
儀禮經傳 醫學正傳 二倫行實			儀禮集(在龍淵寺)
壹隱集 莊陵志 節約通編	節約通編	節約通編	節約通編 正庵集(在湧泉寺) 丁酉司馬榜目(1807)
定齋集			
種德新篇			種德新篇, 諺解 左傳
周易大全, 諺解			周禮 周易大全, 諺解 朱子語類 朱書要類 朱書百選 朱子敬齋箴
朱書要類	朱書要類	朱書要類	

<p><u>中庸大全, 諺解</u></p> <p>關義昭鑑</p> <p>靑陸集 聽訟書 太華集(龍淵寺)</p> <p>鶴泉集</p> <p>漢書 海峯集(桐華寺)</p> <p>訓義小學具諺解</p>	<p>靑陸集</p> <p>漢書 海峰集</p>	<p>靑陸集</p> <p>漢書 海峰集</p> <p>訓義小學</p>	<p>竹泉集(在龍淵寺) 中庸大全, 諺解 直庵集(在桐華寺) 晉庵集(在龍淵寺) 關義昭鑑</p> <p>太華集(在龍淵寺) 通鑑 八子百選</p> <p>漢書 海峯集(在桐華寺) 鄉禮合編</p> <p>皇明世說 黃帝素問</p> <p>欽恤典則 *木鑄字四萬一千六十一字 (具藏在吏廳)</p>
---	------------------------------	--	--